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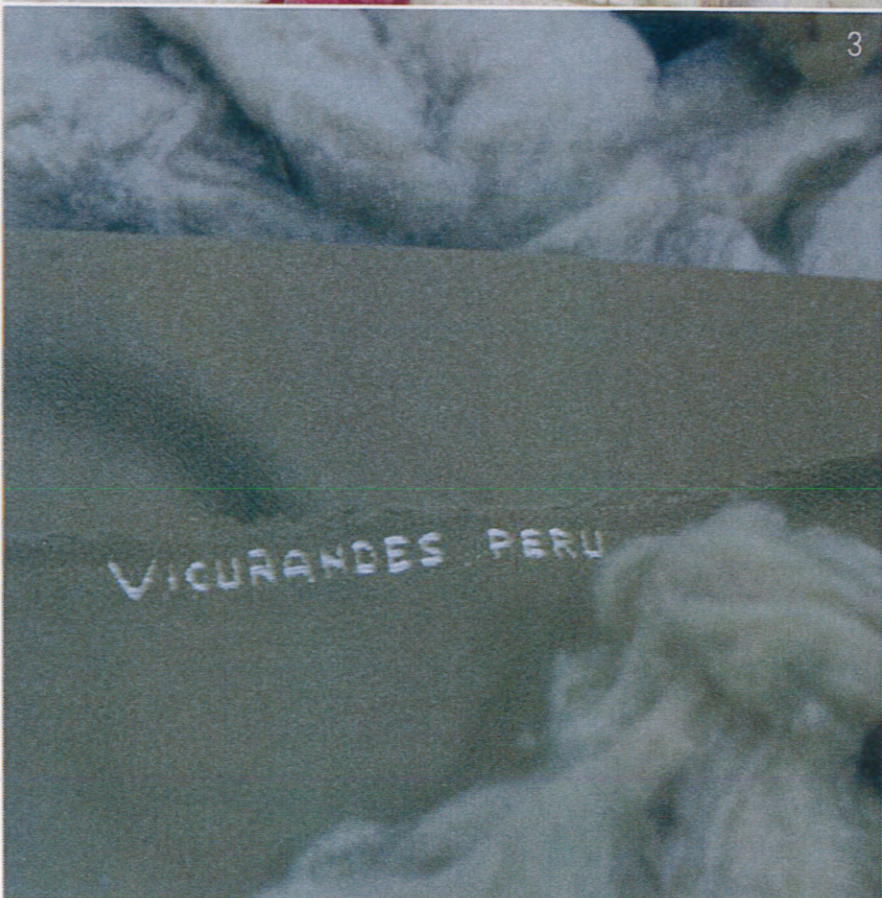
FASHION TRAVEL



1



2



3



4



# Italian Noble Fibre

까다로운 기준을 지닌 소비자층이 많아지면서 패션에도 고급 소재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가족 기업으로서 축적해온 기술, 최상의 품질을 향한 열정만큼이나 이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 또 있을까? 이 열정을 확인하기 위해 이탈리아에서 섬유 개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까다롭게 생산·관리하고 있는 콜롬보 노블 파이버 본사에 다녀왔다.

패션의 본고장 이탈리아는 패밀리 비즈니스를 통해 기업을 이어가는 곳이 많다. 사업 파트너로서 가족은 집과 사무실을 오가며 일을 진행할 수 있고, 의견을 솔직하게 교환하는 장점이 있다. 세대를 이어가며 기술을 축적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량생산과 가격 경쟁력에서 한계를 보이며 대기업에 합병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탈리아 북부 보르고세시아Borgosesia에 위치한 콜롬보 노블 파이버는 캐시미어를 비롯해 최고급 원단을 생산하는 전형적인 가족 기업이다. 국내에서는 롯데쇼핑 글로벌 패션 사업부에서 이 브랜드를 소개하고 있다. '콜롬보Colombo'는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성씨인 김, 이, 박처럼 이탈리아에서 흔한 성 가운데 하나로, 콜롬보 노블 파이버는 1960년대 창립자 루이지 콜롬보Luigi Colombo에 의해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직물 산업을 하던 삼촌에게서 사업 노하우를 전수받은 그는 보르고세시아에 생산 공장을 설립했다. 밀라노에서 북서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이 지역에는 현재 35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재료 선택부터 마지막 공정까지 세심하게 관리하며 최고급 섬유를 생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패션 기업들이 높은 인건비 때문에 생산 라인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지만 콜롬보 노블 파이버는 전 생산공정을 이곳에서 관리하며 품질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창립 초기보다 규모는 훨씬 커졌지만 고품질 원단을 생산하기 위해 전 생산 라인을 꼼꼼하게 관리하겠다는 기업 철학이 밀바탕에 작용한 것. 이들이 한해 동안 생산하는 원사와 원단은 약 1만8000km. 여기서 만든 원사와 원단 대부분은 유수의 명품 브랜드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50% 이상의 꾸준한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사업 성장에는 아버지 루이지 콜롬보에 이어 기업을 이어받은 로베르토 콜롬보Roberto Colombo의 활약이 컸다. 그는 대학 생 시절부터 직물 사업에 관심을 보였으며, 미래에는 최고급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 믿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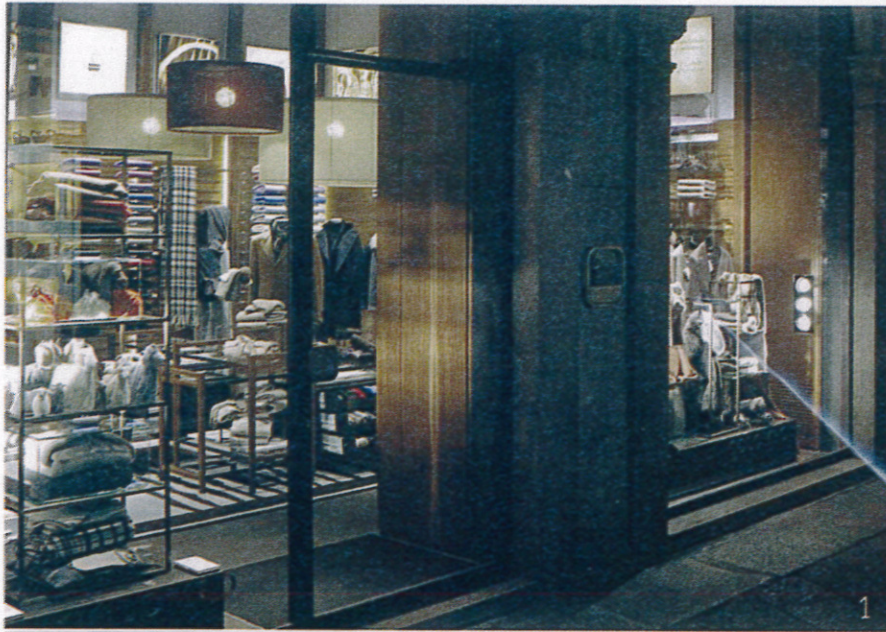
## Prestige Fabric Collection

콜롬보 노블 파이버는 브랜드 이름처럼 최상급 소재에 집중하고 있다. 산양의 부드러운 털만을 가공해 만든 캐시미어, '신의 섬유fibre of the gods'로 불리는 비큐나vicuna, 윤기가 흐르는 밍크, 잉카제국 귀족들의 옷에 사용됐던 친칠라chinchilla 등 동물의 털에서 얻은 진귀한 소재를 전 세계 50여 곳에 분포한 사육지에서 수집한다. 특히 티베트산 염소에서 추출한 금빛 색상의 양지르Yangir는 콜롬보에서만 독점, 생산하고 있다. 1992년부터는 희귀 동물 보호 규정인 CITES(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를 준수하기 위해 비큐나와 낙타과에 속하는 과나코guanaco 등의 희귀 동물을 별도의 농장에서 직접 사육하고 있으며, 거래 제한을 위해 원단에 원산지를 표기하고 있다. 캐시미어와 낙타 털은 몽골 울란바토르 등지에서 구입하는 편. 특히 이곳에서 서식하는 동물은 추운 환경에 적합한 가늘고 치밀한 털을 가지기 때문에 원사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이 털의 굵기는 15 $\mu$ m으로 사람의 머리카락이 보통 80~120 $\mu$ m이니 얼마나 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캐시미어, 비큐나 같은 원사는 털이 길어 그대로 원사로 사용 가능하지만 친칠라, 리초네 같은 털은 길이가 짧아 캐시미어와 혼방해 원단을 만들어야 한다.



1, 6, 7 울퉁과 여름에 선보일 여성과 남성 캐시미어 신제품. 동물의 털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 기법으로 완성하여 최상의 품질을 자랑한다. 2 콜롬보 노블 파이버는 원단 선택부터 옷의 마무리 과정까지 이탈리아 본사에 상주하는 350여 명의 직원이 직접 관리한다. 3 원단에 원산지를 표기해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최고급 소재, 비큐나 캐시미어 혼방. 4 캐시미어 본연의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살린 '케이트' 재킷. 5 콜롬보 노블 파이버의 크리스마스 액세서리 컬렉션.





1 패션의 중심, 밀라노 비아 델라 스피가 33번지에 위치한 콜롬보 노블 파이버 플래그십 스토어. 2, 3 콜롬보 노블 파이버의 모든 의상은 이탈리아 보르고세시아 본사에서 만든 원단을 가지고 고크메 지역에서 완제품으로 제작한다. 4 직접 원단을 만지며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고 있는 콜롬보 노블 파이버 CEO 로베르토 콜롬보.

한 가지 특별한 점은 수집을 위해 동물을 털을 인위적으로 깎지 않는다는 것. "콜롬보 노블 파이버는 털을 얻기 위해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 동물의 털이 빠지기를 기다리죠. 많은 사람들이 동물의 털로 만든 옷이 동물 학대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인식을 바꾸는 데 15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로베르토 콜롬보의 말처럼 콜롬보 노블 파이버는 동물의 털갈이 털을 수집, 보관해 94단계의 생산공정과 18회의 까다로운 점검 과정을 거쳐 최고급 소재의 원단으로 탄생시킨다. 동물의 털갈이 시기가 한정된 만큼 1년 동안 생산 라인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수집한 원사를 최소 1년 정도 본사 공장에서 보관하는 것이 원칙. 현재 보르고세시아 공장에 300톤의 원사를 보관 중인데, 털의 변형을 막기 위해 20°C의 적정 온도와 70%의 습도를 유지하고 있다.

### Real Noble Fibre

콜롬보 노블 파이버를 대표하는 캐시미어는 최상급 화이트 컬러를 비롯해 다양한 색상으로 원사를 얻는다. 부드러운 촉감은 물론 보온성과 자연스러운 주름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았다. 안데스 산맥 고지대에서 생활하는 낙타과의 비큐나는 개체 수가 매우 적은데다, 3년에 한 번 털을 수집할 수 있어 희소성이 높은 편. 비큐나 한 마리에서 얻을 수 있는 양모는 3년에

250g 정도로 캐시미어의 6배가 넘는 가치를 지닌다. 주로 남미에서 서식하는 낙타과의 파나코 역시 특수 시어링 시스템의 발전 덕에 섬유로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섬유는 고온과 추위에 강하며, 광택이 뛰어나다. 히말라야 야생 산양에서 수집한 안지르는 차세대 소재로 각광받고 있으며, 자연스러운 금빛 숨털과 반짝이는 광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밖에도 털의 밀도가 높아 추위를 잘 타는 목과 소매 부분에 트리밍 장식으로도 많이 활용되는 친칠라와 매우 부드럽고 가벼워 주로 장식 요소로 사용되는 족제비과의 어마인(ermain) 등은 브랜드를 대표하는 고급 소재다.

### All Seasons Luxury

'최고의 품질을 지킨다'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3대째 이어가고 있는 콜롬보 노블 파이버의 고급 직물은 에르메스, 샤넬, 루이 비통, 막스마라 같은 유명 패션 기업에 제공되며, 기성복 라인으로 직접 제작해 전 세계 고급 백화점과 14개의 단독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지난 2010년에 패션의 중심인 밀라노 비아 델라 스피가 33번지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연 후부터 본격적으로 프리미엄 기성복을 알리는 데 주력해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에 문을 연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월드타워점을 비롯해 신라호텔 아케이드와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서 만날 수 있다.



**콜롬보 노블 파이버 CEO 로베르토 콜롬보**

언제부터 고급 섬유 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 대학교에 다닐 무렵인 1970년대는 캐시미어가 지금의 비큐나처럼 가장 고급스러운 의류 소재였다. 아버지인 루이지 콜롬보가 캐시미어를 비롯해 울, 낙타 털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섬유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당시에는 작은 공장이었지만 '앞으로 고급 원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다. 가업을 물려받은 후 캐시미어를 대체할 소재를 찾아 전 세계를 돌며 많은 연구를 기울였고, 그 결과 동물의 털같이 털을 이용해 고급 원사를 만들 수 있었다.

지금은 비큐나가 최고급 섬유로 각광받고 있다. 미래에는 어떤 섬유가 비큐나를 대체할 수 있을까? 비큐나를 비롯해 알비노 낙타, 어미인 등 동물에서 얻을 수 있는 소재의 개발은 이미 정점에 다다랐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이 소재에 어떤 가공 기술력이 더해지느냐가 관건이다. 콜롬보 노블 파이버 본사에서는 동물의 털을 가공해 캐시미어처럼 포근하고 비큐나처럼 가벼운 여러 섬유를 개발하고 있다. 친칠라 캐시미어, 밍크 캐시미어 등이 그 결과물이다.

콜롬보 노블 파이버의 캐시미어는 기존의 제품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고급 소재는 원재료를 어디에서 얻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캐시미어 같은 경우 원사가 얼마나 가늘고 긴지가 품질을 좌우한다. 동물의 특성상 춥고 건조한 데 살면 털이 촘촘하며 매우 가늘고 길다. 콜롬보 노블 파이버는 중국 북부와 몽골이 접한 알라산 지역에서 이런 양질의 캐시미어를 수집한다. 원사를 가공해 원단으로 만드는 과정도 특별하다. 콜롬보 노블 파이버는 이미 20년

전부터 캐시미어를 염색하거나 스판 소재와 합성해 신축성을 더하는 등의 기술 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원단 생산 이외에 소매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많은 여성들이 옷을 통해 스스로 만족하기를 원했다. 이들의 자신감은 눈을 보면 알 수 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입었을 때 스스로 만족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옷을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원단이 아닌 직접적인 결과물을 볼 수 있는 리테일 사업에 뛰어 들었다.

현재 생산 라인이 두 곳으로 나뉘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이탈리아 북서부에 위치한 본사, 보르고세시아에서는 원단을 생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여기서 남쪽으로 18km 정도 떨어진 겐메Ghemme 지역에서



**“소재에 대한 자부심과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패밀리 비즈니스”**

는 기성복 라인을 생산하고 있다. 이곳을 총괄해 맡고 있는 아내인 카테리나 콜롬보Caterina Colombo는 입사 후 이미 20년 전부터 액세서리 디자인을 시작했으며, 지금의 기성복 라인까지 단계별 성장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베스트셀러인 케이티Kate 재킷 역시 그녀의 애칭을 딴 제품이다.

좋은 품질의 캐시미어를 고르는 방법은? 품질이 좋은 캐시미어 제품은 부드러운 촉감과 광택이 살아 있다. 손으로 원단을 쥐었다 뺐을 때 구김이 잘 생기지 않는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마치 막으로 보풀이 잘 일어나지 않는 제품을 골라야 세탁했을 때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올해 중국에도 진출한다고 들었다. 앞으로 아시아 시장을 어떻게 예측하는가? 홍콩, 도쿄, 서울에 이어 2015년에는 중국에 매장을 열 계획이다. 중국은 국토가 큰 편이지만 급하게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1년에 2개 정도씩 열 생각이다.

지난 몇 년간 중국에도 경제 위기가 닥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최고급 제품은 그 영향에서 벗어났다. 이것을 통해 많은 소비자가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길러진 것이라 판단했다. 그만큼 품질이 중요해졌다.

글 심희정 기자 | 취재 협조 콜롬보 노블 파이버(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3213-2303)

KATE  
The original cashmere fleece





## LUXURY (1)



## LUXURY (2)

### Italian Noble Fibre

최근 소비자들의 취향은 고급스러움과 정제된 미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의 고급 섬유는, 특히 최고급 양모와 최고급 실크를 생산하는 주요 생산지이다. 이탈리아의 최고급 양모는, 특히 최고급 양모를 생산하는 주요 생산지이다. 이탈리아의 최고급 실크는, 특히 최고급 실크를 생산하는 주요 생산지이다.

세계 최고급 양모를 생산하는 이탈리아의 최고급 양모는, 특히 최고급 양모를 생산하는 주요 생산지이다. 이탈리아의 최고급 실크는, 특히 최고급 실크를 생산하는 주요 생산지이다. 이탈리아의 최고급 양모는, 특히 최고급 양모를 생산하는 주요 생산지이다. 이탈리아의 최고급 실크는, 특히 최고급 실크를 생산하는 주요 생산지이다.

#### Prestige Fabric Collection

세계 최고급 양모를 생산하는 이탈리아의 최고급 양모는, 특히 최고급 양모를 생산하는 주요 생산지이다. 이탈리아의 최고급 실크는, 특히 최고급 실크를 생산하는 주요 생산지이다. 이탈리아의 최고급 양모는, 특히 최고급 양모를 생산하는 주요 생산지이다. 이탈리아의 최고급 실크는, 특히 최고급 실크를 생산하는 주요 생산지이다.



### Italian Noble Fibre

As consumers' taste is getting particular, the demand for luxurious fabrics is getting bigger. What can be better in accordance with the demand than the technology accumulated from the family business and the passion for the best quality? To look in the passion, we visited the head office of COLOMBO Noble Fibres in Italy, which has managed the whole process of manufacturing with a greatest care.

There are a lot of fashion firms which succeed their family business in Italy. Working with family as a partner has merits to be able to work at both of the company and home, and to frankly talk about their opinions. In addition, it is also a merit

that they can accumulate techniques generation after generation. However, recently there are many cases that the family companies have been merged to bigger companies because of mass production and price competitiveness.

COLOMBO Noble Fibres in Borgosesia, northern Italy, is one of family businesses. It has produced not only cashmere but top-quality fabrics. In Korea, Lotte shopping Global Fashion department has introduced this brand. Colombo is the first name which is most popular there like Korean Kim, Lee, and Park. COLOMBO Noble Fibres was established in 1960s by the founder, Luigi Colombo, and the history of the company started from that time. He learned the know-how about textile industry from his uncle, and then founded his own factory in Borgosesia. In this region which is



100km far from Milano, now 350 workers are working there. They have tried to do their best to make the best fibers, so they have given much attention to every single step. Although a lot of fashion companies there have moved their production line to other countries because of high-priced labor, COLOMBO (short for COLOMBO Noble Fibres) hasn't moved but more focused on qualitative development. It has been enlarged more than in the early days of the business. It is because they have business philosophy that every process must be managed and controlled in detail. The amount of yarn and fabric that they have produced for a year is about 18,000km. The yarn and fabric have been used by the world famous luxury brands, and every year, 50% of selling progress is carted. The progress would be attributed to Roberto Colombo, Luigi Colombo's son. Roberto has been interested in textile business since in college, and has believed that in the future, developing the most luxurious fabric will give the business a high value.

### **Prestige Fabric Collection**

COLOMBO has focused on the world top-quality fabric as their name. It has gathered cashmere of goats' soft hair, vicuna called 'fiber of gods', sheen mink, chinchilla Incaic nobles used, and so on from over 50 farms all over the world. Especially, the golden yangir extracted from Tibetan goats has made an exclusive contract with COLOMBO. Since 1992, COLOMBO has raised rare animals such as vicunas and guanacos in their own farms to observe the regulation of CITES(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and has put marks-of-origin on their products for transaction restriction. They have bought cashmere and camels' hair from Ulan Bator, Mongolia. The animals' hair which have grown there have very high value as a yarn because the hair becomes very thin, long, and tufted in cold weather. The yarn is 15 microns thick. Compared with the fact that human hair is commonly 80 to 120 microns thick, it is incredibly thin. Cashmere and vicunas' hair can be used as it is because it is long enough, but chinchillas' and richones' hair is so short that it is used for blending with cashmere.

1,6,7 New cashmere items for women and men for 15ss. Proud of being made of furs with a variety of manufacturing techniques.

2. 350 workers at the headquarters of COLOMBO manage every processing step.

3. Putting marks-of-origin on their products for transaction restriction. Blended cashmere with vicuna.

4. Kate jacket with warm and soft cashmere.

5. Accessory collection for Christmas.







companies such as Hermes, Chanel, Louis Vitton, Max Mara etc. Moreover, they launched ready-to-wear apparel and have distributed them into 14 department stores all over the world. Since opening a flag shop on 33<sup>rd</sup> Via Dellar Spiga street in Milano in 2010, they have concentrated on the promotion of their premium apparel. In Korea, we can meet this apparel brand at Lotte Avenuel Worldtower branch, the Shilla Arcade, Daegu department store Plaza branch, and Busan Lotte department store.

## LUXURY (4)



**“Family business based on the Pride and high-tech of the fabrics”**

Roberto Colombo – the CEO of COLOMBO Noble Fibres

**When did you come to be interested in noble fiber industry?**

In 1970s, cashmere was such an expansive fabric like vicunas' now. As my father ran a cashmere factory, I naturally got interested in it. At that time, the factory was so small, but I thought soon or later it could be grown up with upgrading the fabric. After taking over the company, I focused on research visiting all around the world to find

a cashmere substitute, and then I could find the method to use molting animals' hair to make luxury yarns.

**Now vicunas' hair has been given much attention as the top-quality fabric. What fabric do you think vicunas will be replaced by?** I think the most luxury fabrics made of vicunas' hair, albino camels' hair, ermains' etc. have already reached the top, so from now on, which processing technique is added will be the key point. We have been developing a variety of warm, cozy and light fibers like cashmere and vicuna. Chinchillar cashmere and mink cashmere are one of the results.

**How is COLOMBO noble fiber different from other yarn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the material is where it is gotten from, and for cashmere hair, the quality is up to how thin and long it is. Animals' hair becomes tufted and thin in cold and dry weather. We, COLOMBO, buy good-quality cashmere hair in Alashan, Mongolia which is located at the north-eastern of China.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COLOMBO is very unique and special. The methods to dye cashmere or to add elasticity into cashmere with synthesizing span yarn are what COLOMBO first developed about 25 years ago.

**What is the reason you launched retail business?** I would like women to be satisfied with themselves in our garment. We can recognize women's confidence if looking at their eyes. I want to make garments which can give pride to anyone who wears our garment, not just to show the



outfit to others.

**Is there a reason you divided the producing line into two regions which are Borgosesia and Ghemme?** Borgosesia is for fabrics and Ghemme is for ready-to-wear apparel that my wife, Caterina Colombo, has made there since 20 years ago. 25 years ago Kate entered the company, she started accessory design at first and later she grew up to be a great fashion designer. The bestseller, Kate jacket, is the product named after her.

**Would you like to tell your tips to pick up good-quality cashmere?** Firstly, it is elegant luster and texture, secondly, not easy to wrinkle, and finally lint-free. That kind of cashmere usually doesn't lose the shape after washing.

**I heard you will expand your business to China. What do you think about next Asian market?**

In 2015, I will open a shop in China in the next to Hong Kong, Tokyo, and Seoul, and the plan is to open two or three shops a year not in a hurry but with patience. For years, China has had economic crises, but the best luxury goods have not been affected. Now customers have their own view to select good product, so it is not enough to attract customers just with marketing. Now is the era that quality is more important than marketing.